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호랑이해가 밝습니다.

설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 바랍니다.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설은 저희가 섬기는 민족과도 날짜 계산이 조금은 다르지만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두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과 해우하고 대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며 보내고 돌아옵니다.

3년째 계속되는 감염병 사태로 컴퓨터를 가지고 귀가하였으나 2월 14일부터 정상근무를 약속했습니다.

대개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도 7일로 길지만 개인 연가도 대개 이 기간 앞뒤에 씁니다.

예라 자매도 그렇게 아들 초놀이 방학하자 마자 귀가하여 룡투 형제와 함께 현내로 이혼수속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에도 자료 미비로 결국 헛걸음을 했는데

이번에도 공무원들이 핵산검사와 격리기간을 고려하여 일찍 귀향하는 바람에 헛걸음을 하였답니다.

과연 초놀 개학 전까지 그 공무원들이 돌아와 수속을 마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두사람이 이미 오랜동안 별거중이고 충분히 숙려 및 합의한 내용이지만

왠지 ㅎㄷㄷ께서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린형제 부부는 오미크론으로 강화된 방역규정 때문에 올해 구정을 처가에서 보낼 생각으로 추운 따오현 겨울을 피해 상현에서 머물면서 룡장형제와 룡짜자매에게 맡겨진 짐을 나누어 저주었습니다.

대신 따오현 사역의 짐을 룡짜자매가 나누어 저주는 아름다운 상호 협력이었습니다.

룡짜 자매가 그래도 M.Div를 졸업했다고 린형제가 많이 세워주는 모습도 참 좋았고

여형제 귀환이 어려워지면서 내내 썰렁했던 상현 센터가 화기애애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유행하는 감기에 오랜 동안 심한 고생을 하고 나서 써라 자매는 B형간염,

린형제는 결장염을 치료하기 위해, 갓 돌을 지난 찌아인은 추가 예방접종을 위해

결국 1월 하순 해안 지역에 있는 린형제 고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 바랍니다 주세요.

이를 위해 린형제 파송기관장과 제가 협의하는 가운데 검사 검사

매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상현과 뽀진의 대체 사역자 요청 건에 대한 결과를 문의했는데

역시 현지의 부정적인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감염병 사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지만 책임자 역시 적극적으로 권할 수도 없다는 매우 솔직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짐작했고 이해도 되지만 속상했고 함께 간절히 기 바랍니다 해 온 지체들이 너무 실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라면 센터를 옮기고 사람을 바꿔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만

저희 사역지는 핍박과 배척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 밖에 없는 그런 좁고 뽀한 곳입니다.

당분간은 번역팀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내며 헌신자를 기다리자는 제 도전에

동역자들은 다소 놀랐으나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번역팀 동역자들에게 스르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생님께서 쿤왕자매와 교재중인 장형제를 데리고 산행에 다녀왔습니다.
파송회사에서 보내주신 선물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다만 조선생님도, 초행인 장형제도 고산반응 때문에 꽤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장형제에게는 이번에 감동을 받고 상현 사역에 헌신해 주었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예 호기심과 관심마저 잃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귀향하여 명절 전후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 뵈며 혼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조선생님도 계속 바쁜 일정 뒤에 이어진 산행이라 컨디션 조절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김유진 선생 거류증 신청도 잘 접수되었고 런현 사무실 정리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나 지사 은행 구좌 해지 건과 처음하는 전체 사역팀 월례회 및 행정 체계를 잡는 일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룽장 형제가 교제 중인 자매와 함께 훈련을 받겠다고 올해 3월로 훈련 일정을 미루었는데
다시 결혼하고나서 내년이나 가겠다고 하여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2009년 룽투 형제가 예라 자매와 결혼하고 훈련을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른 임신으로 훈련 일정을 미룬 것이 결국 이듬해 가정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룽장 형제도 당뇨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전혀 절제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결혼 할 자매도 간질이 있어 이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룽장 형제라도 말씀으로 훈련 받고 서로를 배려하고 돌봐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팽팽한 대립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바나바 올림